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제임스 K. A. 스미스 /  
박세혁 옮김 / IVP

제임스 스미스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 '예전적 동물', 즉 신념이나 사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것(욕망)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고 정체성이 형성되는 존재로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세속적 문화기관(쇼핑몰, 국가, 교육)과 예배는 모두 인간의 마음을 형성하는 '예전'이자 '문화적 실천'이다. 그는 예배가 반문화적 태도(세속적 문화기관과의 분리 추구)를 취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항적' 실천이 되어야 하며, 특히 기독교 교육이 '교회'의 교육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기독교 예배라는 두꺼운 실천과 구체적으로 묶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수도원주의'를 제안하며 문화적 제도의 특정한 양상, 즉 구조가 아닌 방향성에 따라 참여하기를 자제하는 절제를 지니고, 날마다

예배하는 습관이 있으며, 증인이자 순교자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치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대안적 인간 공동체이다.

###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한 사람

이 책을 읽는 동안 나의 삶의 여정과 '정체성'에 대해 떠올랐다. 내가 몸담았던 '실천들', 즉 교육철학, 예배(교회공동체), 세계관/세계관교육, 그리고 다시 예배 공동체. 나의 정체성은 한 때는 교육철학도, 할렐루야 아줌마, 기독교 교육실천가였고 현재는 학생만도 아니고, 할렐루야 아줌마만도 아니고, 실천가만도 아닌 다양한 두개의 실천들에 걸쳐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엮여 있다.

###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지?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며 "인간", "교회", "좋은 삶"에 대한 복잡다단한 질문,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교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라는 질문과 씨름했던 지난 삶을 정련된 분석과 설명으로 정리하는 기쁨을 누렸다. "왜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내 삶은 변화되지 않지?", "왜 다양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도 내 삶은 그대로이지?", "왜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많은데도 세상 속에 크리스천의 향기가 안 나는 것 같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 본 사람들,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목회자와 사역자, 기독교 철학자, 신학자, 특히 교육철학자와 기독교 교육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 책 속의 한 줄

쇼핑몰과 빅토리아 시크릿, 제리 브룩하이머가 우리의 몸과 감각을 통해-이야기와 이미지, 시각과 청각, 상업화된 '향과 중'을 통해-우리의 오장육부(카르디아)를 사로잡는 데 반해, 교회의 대응은 이상하게도 합리적이다. 교회에서는 일종의 거룩한 강의를 45분간의 교훈적 설교가 그 정점을 이루는 '예배'에 우리를 밀어 넣고 우리의 지성에 교리와 신념을 이식함으로써 그 위험을 우리에게 확산시키려고 한다. 쇼핑몰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전적이고 욕망하는 동물임을 이해하는 반면, (개신교) 교회는 아직도 우리를 데카르트적 지성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_p.192